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연내 구축

익산시, 액화염소→차염 교체·CCTV 개선... 수돗물 생산 안전성 확보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특별한 상수도 체계를 도입한다.

익산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올해 안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잡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7억 원(국비 103억 원 포함)을 투입해 상수도 공급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설치된 장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상수도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간 수질 감시와 관리를 위한 정밀 여과 장치 10곳과 오염 발생

투입해 그동안 취급과 관리에 유해성·위험성이 많았던 신흥정수장 소독시설을 기존 액화염소에서 차염 주입설비로 교체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금강정수장을 액화염소에서 차염 주입설비로 교체해 위험성을 해소했고, 올해는 신흥정수장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차염 주입설비의 경우 유효 염소 농도(12%)가 기존 액화염소(9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 불편 사항이었던 소독약 냄새가 현저히 저감될 예정이다.



익산시가 원광대학교, 다산그룹과 함께 익산 IT밸리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IT밸리 생태계 구축 박차

익산시, 원광대-다산그룹 협력... IT인재 육성·고용 창출

익산시가 원광대학교, 다산그룹과 함께 익산 IT밸리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구(舊) 청년센터 청송 2층에 설립된 다산그룹 자회사인 (주)다산소프트가 2일 기업설명회와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다산소프트는 자동차 내부의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고,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의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 이민호 (주)다산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시청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 이어 (주)다산소프트로 자리를 옮겨 현판식을 가졌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 원광대학교, 다산그룹과 '익산 IT 밸리 청년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통신 시스템 등 자동차의 안전·편의·연결성 향상에 기여하고, 트렌드에 발맞춘 차세대 소프트웨어 개발로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남민우 다산그룹 회장은 "익산시, 원광대학교와 체결한 협약은 지역 IT 인재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근무 환경 제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혁신 추구와 지역사회 기여를 중요한 가치로 삼은 다산그룹은 다산소프트를 시작으로 지역 사회 동반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다산소프트 설립은 협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각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IT 인재 발굴·육성,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산그룹과 원광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익산시가 IT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치 단독주택 소유자 대상

군산시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2024년 주택용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보조금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에너지원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보조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주택에 3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4만원에서 6만원 가량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13.6㎡ 규모의 태양열 시설 설치 시에는 집열기를 통해 얻은 열로 온수를 사용해 연료비를 월 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 군산시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의 가정 보급 촉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는 주택지원사업 신청자에게 국비보조금 이외의 추가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만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본격 운영

익산시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순조롭게 마치고 본격적인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나섰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상반기 11개 프로그램 참여자 190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진행된 시범운영을 통해 관한 지역인 모험동, 송학동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은 지난달 말까지 22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521명이 체험에 참여했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서부지역 생활권 중심의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기 프로그램인 라인댄스 초급반은 20명 모집에 45명이 신청해 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익산시는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어린이 건강체험관 안전사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했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서부지역 생활권 중심의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기 프로그램인 라인댄스 초급반은 20명 모집에 45명이 신청해 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체성분 분석 등 원스톱건강서비스에 143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서부지역 생활권 중심의 주민 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교통수단 지원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해 선거기간 중 특별교통수단 3대를 투표지원 차량으로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료 이용 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등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된 교통약자이며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445-1190)로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군산시장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hamlet · ham 등 10여 마을 하수관로 정비

익산시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합월읍과 함라면, 성당면 지역 10여 마을에 분류식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이다. 국비 146억원 등 총사업비 244억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25km와 888가구의 배수 설비를 신설한다.

지난 2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각 가정의 화장실과 주방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오수관과 오수받이를 설치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 오수가 합월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되고 현 정화조는 폐쇄된다.

기존에 마을에서 사용되던 정화조는 토양오염이나 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 우려가 발생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악취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훈기자

군산시, '청소년상' 7개 부문 후보자 모집

군산시가 밝고 건전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술·담배·약물·성매매 등 총 7개 부문이며, 부문별로 1명씩 시상한다.

'군산시 청소년상'은 자신의 재능을 탐구하고 개척해나가는 청소년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9세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수상후보자 추천은 학교장, 청소년시설 및 단체장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할 수 있다. 단, 근로 분야는 50인 이상의 기업체 대표의 추천도 가능하다.

2016년 조례 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선정 부문은 △봉사 △효행 △근로 △문화

△체육 △과학 △참여행로 총 7개 부문이며, 부문별로 1명씩 시상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9세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수상후보자 추천은 학교장, 청소년시설 및 단체장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할 수 있다. 단, 근로 분야는 50인 이상의 기업체 대표의 추천도 가능하다.

2016년 조례 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선정 부문은 △봉사 △효행 △근로 △문화

군산시 청소년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분야별 1명씩 최종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군산시장상패가 수여된다. /군산=김판근기자